

# 구속 사업

## 시애틀 대교구안에서의 성체의 신앙과 실천

### 서론

시애틀 대교구에서의 첫해에 저는 수십 개의 본당과 지구에서 미사를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어디서나, 활기 있고 신앙으로 가득 찬 신자들의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크기가 크든 작든, 도시든 외곽 이든, 우리 본당들은 전례 거행에 많은 관심을 바칩니다. 그 이유는 참으로 단순합니다: “교회는 성체 성사에서 그 삶을 이끌어 냅니다.” 성체 성사는 교회와 그리스도 신자로서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성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코비드-19 유행병은 미사를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유행병으로 “성체를 영할 수 없음”이, 성체를 영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지 새로운 방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함께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본당은 소셜 미디어와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본당 생활 선두에서 성체 성사를 계속 거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에는 알수 없었던, 함께 성체 성사를 하고 성체를 모시기 위해 모이는 것을 대신할 것이 없다는 것과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애틀에서 첫해가 끝날 무렵, 저는 이 지역 교회의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중심과 본당 생활의 중심인 성체 성사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도록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체 성사는 우리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매일 새롭게 되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파스카 신비인 은총의 무한한 근원입니다. 성체 성사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현존입니다. 그 현존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영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성체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체는 우리를 봉사와 사랑으로 이끌어 우리가 가난한 이와 함께 하게 합니다.

성체에 관해서는, 언제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성체 신학을 연구했든, 또는 첫 영성체를 준비하고 있던 상관없이 성체 성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 공동체의 원천이 무엇이든, 보살핌과

관심으로 우리 전례는 항상 개선될 수 있고, 모든 성체 성사를 진정으로 주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다 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해에 저는 모든 가톨릭 신자와 모든 본당 공동체가 성체 성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심화시키고 성체 성사 전례를 강화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청합니다.

격려의 마음과 주님의 제단 주변에서 보다 심오하고 가시적인 일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성체 성사에 대한 이 사목의 편지를 공유하고 내년을 시애틀 대교구 **성체 성사의 해**로 선언합니다. 다음의 생각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의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전례와 구속 사업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1963)의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Sacrosanctum Concilium*) 시작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무엇보다 성체 성사의 신성한 희생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이루어지는" 전례는 신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된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탁월한 방법입니다.<sup>2</sup>*

그리스도 죽음의 파스카 신비와 부활을 통해, 하느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선포했고, 오늘날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sup>3</sup>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이 선물은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속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탄생은 이득이 없었을 것입니다."<sup>4</sup> 그리고 전례를 통해 이 위대한 구속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례속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계속 행동하십니다. 교회가 성체 성사를 위해 함께할 때,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업을 계속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동하십니다.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의 짧은 구절에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특히 앞으로 몇 달 동안 대교구 사목 계획 과정으로, 선교에 집중하도록 도움이 되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1. **그리스도 신비의 신앙적인 표현.** 전례는 사제가 하는 일이 아니며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가톨릭으로서, 전례는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언어입니다. 주일 전례를 거행하기 위해 거듭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의 시간과 헌신을 통해 그 신비를 표현하는 우리의 주요 수단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행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반영합니다. 의식적으로 성체 성사 참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 가까운 교감속에 사는 법을 배웁니다.
2. **그리스도의 신비를 다른 이에게 전파.** 그리스도와 가까운 교감속에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현존을 전파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기쁨을 나누는 복음화 사업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쓰신 것처럼,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그들의 입장이나 신앙에서의 그들의 가르침 수준이 무엇이든 복음화의 대리인이며, 나머지 신자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수혜자가 될 뿐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될 복음화 계획을 상상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다. 새로운 복음화는 세례를 받은 각자의 개인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복음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참으로 하느님 구원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함 사람은 나아가 그 사랑을 선포하는데 많은 시간이나 긴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sup>5</sup> 이것이 “선교의 제자” 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배우고 제자가 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보내졌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선포는 삶의 진정한 증거입니다.
3. **신자들은 참된 교회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무슨 뜻일까요? 신자들,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단체가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지상과 천국에 살아있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체 성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대 주위에 공동체가 모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교회가 진정 무엇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신성,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은총을 부여받았으며, 묵상에 열심하며 묵상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 가정에 있지 않습니다.”<sup>6</sup>

전례에서, 우리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례를 통해 하느님은 우리를 선교의 제자로 부르시고 만드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앙은 진심으로 바라고 신앙의 신비가 현존할 때  
낮선 사람이나 침묵하는 구경꾼으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그들이 신성한 행동에 참여해야 할 의식과 기도의 이해를 통해  
자신이 하는 일을 의식하고 신성한 행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몸의 식탁에서 자랍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직자의 손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무결한  
희생자를 바치려면 자기 스스로를 바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sup>7</sup>*

전례에 관해서는 단순히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용한 관중”이나 손님이나 거룩한 구속 사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헌신적인 협력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례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는 그리스도 선교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줍니다. 전례를 거행하기 위해 몇 번이고 모여서 우리는 성체 안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을 바치신 것을 경험하고 참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의 열매를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삶의 본보기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전례는 우리 삶의 본보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이 삶의 방식은 아침 기도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성모 마리아의 성심을 통해 오늘 저의 기도, 일, 기쁨과 고통을.. 미사의 거룩한 희생과 결합하여 여러분에게 받칩니다.” 세례에서 우리와 함께 나눈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성체 성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양육됩니다. 가톨릭 생활은 성체 성사의 생활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 있도록 축복받고, 나누어지고, 번성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1-15 참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20)

신자들이 전례에서 자신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목자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성체 성사를 주관하는 타당한 전례법을 따르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자들이 자신의 일을 완전히 인식하고 예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 효과로 풍성한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도

그들의 의무입니다.”<sup>8</sup> 사제가 전례를 거행하는 방식 (아르 셀레 브란 디 (the *ars celebrandi*))과 그가 자신의 본당 공동체에 제공하는 교육에서 사목자는 모든 가톨릭이 온전하고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영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미사에 거행하는 신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과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분의 희생의 순간을 우리 삶의 시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우리가 이 은총을 알고 이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해 할때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열의를 가지고 이 새로운 삶에 들어가야 하며, 예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그 안에 살 수 있습니까?<sup>9</sup>*

## **미사 기도: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

미사는 우리의 기도중 으뜸이며,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근원이자 정점입니다. 여기에는 무한한 부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사를 드리는 순간순간 “깊은 명상”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례에서 만나는 하느님의 신비와 무한한 본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몇 가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에서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제들은 전례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해 설득력있게 말했습니다. 사실, 단순한 있음이 아니라 현존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미사를 거행하기 위해 모일 때 네 가지 방법으로 현존하십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지 때문이다” (마태오 18:20)는 이유로 미사 때 현존하십니다. 그분은 미사를 거행할 때 온전한 그분으로 행동하는 사제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선포되는 말씀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의 몸과 피의 성사인 성체 성사 안에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미사를 거행할 때, 우리에게 친숙한 성 파트리시오의 방패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시며, 내 뒤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계시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먼저 펴지 않고는 결코 성체 성사를 거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일에, 독서는 구약의 약속에서부터 신약에서의 실천을 통해 하느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안내합니다. 구약의 이야기와 예언서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길을 준비하실 때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관심을 봅니다. 시편은 히브리 민족의 기도서이자 우리의 기도서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두 번째 독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선포하기 위한 초대 교회의 분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 낭독은 “말씀의 전례의 정점”<sup>10</sup> 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교회는 복음 안에서 “신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sup>11</sup>

그러나 말씀의 전례는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교회에서 선포될 때, “하느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구속과 구원의 비밀을 열어 주시고 영적인 양분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신자들 가운데 그의 말씀을 통해 현존하십니다.”<sup>12</sup>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우리의 삶과 사회가 직면한 도전을 정직하게 성찰할 때, 우리를 하느님께서 변화 시키시도록 자신을 열어 보입니다.

## 미사 기도: 실제 현존

성체 성사의 전례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감사기도는 공동체 전체를 대신해 사제가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 사제직의 일원으로서 함께 아버지께 바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활을 빵과 포도주와 함께 바침으로서 세상과 그 모든 활동을 하느님 앞에 바칩니다. 빵과 포도주의 준비 기도를 할 때 사제는 하느님께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것을 받으시길 구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랑과 수고, 가족의 기쁨과 슬픔, 공동체와 국가로서의 우리의 필요와 같은 우리의 일을 가져올 때 하느님 은총으로 그것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빵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고, 그것은 우리들의 천상 양식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바치신 그리스도의 한 번의 희생은 이 신비 속에서 새롭게 되었으며, 성체 성사를 통해 우리는 동일한 희생에 참여합니다. 이 성체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은 단지 공동체로서의 하나 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체

성사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영혼 그리고 신성 가운데 참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현존."이라 합니다.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실 때 구원을 위해 바치신 주님의 몸과 피를 참으로 받아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이 신비를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성체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신비를 처음으로 선포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분개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요한복음 6:66)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신앙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자주 잊고 사는 생활을 합니다. 신앙은 종종 과거 먼지투성이의 유물로, 교회는 또 하나의 결함이 있는 인간 단체로 제시됩니다. 우리 문화에 널리 퍼져있는 이러한 태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사 중시의 사상과 성체 성사에서의 그리스도 현존을 인식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체 성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현존이며 그 신비가 역사의 토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 요한 바오로 2 세<sup>13</sup>의 절을 사용하기 위해 "성체성사의 놀라움"을 실감하거나 재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체 성사는 우리 모든 일의 초석입니다: 우리가 믿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이끌어내는 근원이며, 우리의 모든 일과 봉사가 향하는 정상입니다.

성체 조배는 미사 중 성체 성사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OSB의 Abbot Jeremy Dridcoll이 말했듯이, 성체 현시는 봉헌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높이에 대한 "고정된 틀"과 같습니다. 미사 전례는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미사 외에 회의에서든 또는 성체 조배 중이든, 축복받은 성찬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 그 신비에 관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미사는 그의 백성을 창조하고, 형성하고, 구원하는 하느님의 행동입니다. 흠숭은 우리를 위해 이뤄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 앞에 보여줍니다. 교회는 성체 조배는 항상 미사 때에 영하는 성체와 관계된다고 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의 사명을 숭배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랜 숭배의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만남, 주님과 진지한 대화 없이는 우리의 일은 쉽게 무의미해 집니다; 우리는 피곤함과 어려움으로 힘을 잃고 우리의 열정은 사라집니다. 교회는 심오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sup>14</sup> 우리가 축복받은 성찬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우리와 주님 만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계속해서 "기도의 순간이 선교 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사유화된 생활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된 형태의 영성을 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sup>15</sup> 성체 조배를 하는 우리의 시간은 항상 우리의 삶과 행동에 넘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성체 안으로 더 깊이 이끕니다. 켈커타의 축복받은 데레사를 예로 들면 성체 안의 주님과 만남을 통해 이웃 사랑에 대한 그들의 능력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였으며, 반대로 이 만남은 타인에 대한 봉사에서 현실과 깊이를 얻었습니다.”<sup>16</sup>

저는 저의 전임 부주교님이신 A.M.A. 주교의 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구의 첫 주교이신, 블랑쉐는 이 교구는 1850년 5월 31일에 설립되었지만, 블랑쉐 주교님은 그분의 일기에서 1851년 1월 23일 인 다른 날짜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날 성체성사가 처음으로 성 야고보 대성당에 예정되었고, 당시 포트 밴쿠버 근처에 있는 단순한 목재 건물의 교회였습니다. 블랑쉐 주교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축복받은 성찬은 성막에 놓입니다. 그렇다면 성 야고보에게 헌정된 교회는 이 순간 진정으로 하느님의 집이며 천국의 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그분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 지어진 이 집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눈과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블랑쉐 주교님은 성체 성사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현존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성체 성사 중 우리 가운데 계시며, 이 현존은 우리 모두와 지역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계속하게 합니다.

## 우주의 신비

성체 성사에는 우주적인 것이 있습니다. “한 시골 교회의 겸손한 제단에서 거행될 때에도 성체 성사는 항상 어떤 식으로든 세상의 제단에서 거행됩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물을 포용하고 스며듭니다.”<sup>17</sup> 성체 성사는 인성과 신성, 지상과 천국 모두입니다. 성체 성사 안에서, 강생으로, 땅과 하늘이 만납니다. “주님은 강생의 신비의 정점에서 자신을 나누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오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위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셔서 우리 세상에서 그를 찾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체 성사에서는 이미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살아있는 중심이며 사랑과 무한한 삶의 넘쳐나는 핵심입니다. 성체 안에 있는 강생 하신 아드님과 함께 온 우주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성체 성사는 그 자체가 우주적 사랑의 행위입니다.”<sup>18</sup>

성체 성사는 우리의 내면 생활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를 넘어 주님과 깊은 관계로 인도합니다. 이 천상 양식은 우리가 천국에서 진정한 머무를 곳을 찾을 때까지

지상 순례를 위해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저는 최근에 이 간결한 주시를 한 우리 수도자 중 한 명으로부터 사랑스러운 메모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천국에 있고, 천국은 성체에 있습니다.”

지상에는 성체 성사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 음식과 음료이지만 다른 어떤 음식과 음료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나누어진 양식이지만, 다른 양식과는 다릅니다. 성체 성사에서 하느님은 우리의 지상 제물 중 가장 겸손한 빵과 포도주를 취하시고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비범한 것으로 변화 시키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받기 위해 겸손히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일 미사에 올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따뜻한 환영, 좋은 음악, 훌륭한 강론 (너무 길지 않은) 그리고 품위와 존경심, 스타일과 우아함으로 축하되는 전례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성체와 만남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항상 우리의 사목, 본당 생활, 신앙 생활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례는 진정으로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상; 동시에 그것은 교회의 모든 힘이 흐르는 원천입니다.”<sup>19</sup> 성체 성사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강렬한 사랑을 이끌고 불을 지피며” 다른 모든 본당 활동에 자극을 주며, 이는 다시 찬양과 감사의 성체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야 합니다,

## 일치의 도전

성 바오로는 공동체가 파벌로 나누어진 고린도 사람들에게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특히 성체 성사를 위해 모였을 때 이러한 분열이 분명했다는 것에 분개하였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모임을 가질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1:18, 22)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일치를 인지하는 대신, 일부 가톨릭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악마처럼 취급하기에 그러한 분열을 심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는 방법이 더 낫거나 심지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전례는 너무 쉽게 이데오로기적인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를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대로 만들 수

있는 단체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신비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체를 우리와 같은 존재로 작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신비의 차원까지 스스로 열어야 합니다.”<sup>20</sup> 우리가 성체를 거행할 때 하느님은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통해 우리를 하느님의 가족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이 당신 앞에 부른 가족을 은혜로이 바라보십시오.”<sup>21</sup>

지역 교회로서, 하나 됨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 이상의 목표입니다. 하나 됨은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요한복음 17:20-21) 우리가 증인 됨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 됨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체 성사보다 그 하나 됨이 더 중요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모이면,  
우리 마음에 분열이 없도록 노력합시다;  
적의, 불화 그리고 다툼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하느님께서 여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하십시오.*<sup>22</sup>

하나 됨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 됨은 주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 세는 “그리스도와의 하나 됨 또한 그가 자신을 바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되는 것입니다”라고 쓰셨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자신이 되거나 또 될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어 그에게 속할 수 있습니다. 친교는 나를 내 자신에서 그에게로 이끌고,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됨을 향해 이끌고 있습니다.<sup>23</sup> 우리가 성체 성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영할 때 경험하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나눔은 미사가 개인의 헌신이 아니라 공동 기도이기 때문에 엄격히 하느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성체 거행은 개별적인 경건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 됨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성가, 응송, 미사 중에 하는 자세 (서기, 절하기, 무릎 꿇기)는 그 하나 됨의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 됨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 미사의 일반 지침은 미사 시작 부분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성찬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sup>24</sup> 모인 사람들의 하나 됨을 촉진' 한다고 알려 줍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공통의 자세는, 전례를 위해 모임 그리스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 되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의도와 영적 태도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참여하고 활성화합니다."<sup>25</sup> 미사를 거행하기 위해 모임 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례 사제가 예수님의 몸을 나눌 때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의 몸은 여럿으로 나뉘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이 쓰신 것처럼,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0:17)

우리의 하나 됨은 본당 공동체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우리는 보다 더 큰 교회의 일부분이 되고, 이 지역교회, 시애틀 대교구 그리고 전 세계가 됩니다. 초기 로마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 됨은 더 이상 미사의 일부가 아니라 조각이라는 특이한 의식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주일에 로마 주교는 그의 미사에 봉헌된 빵 조각을 각 본당에 보냈습니다. 이 조각은 각 성체 성사마다 성작에 섞입니다. 그것은 로마 주교가 제공하는 미사와 교구의 하나됨을 상징했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대교구를 알게 되면서 다양한 전례의 관행을 보았습니다. 지역 교회로서의 우리의 하나 됨을 표현하고 강화하기 위해 저는 미사의 여러 측면을 정확히 하고 자세와 실행의 단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상 우리의 모든 본당 공동체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만, 전례를 기념하는 지역 교회로서의 우리의 단합은 우리의 노력을 확실히 보증합니다. 이문제에서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의 실해, 특히 개인적인 성향이나 임의의 선택보다는 "하느님의 백성의 공동 영적 선에 봉사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6

### *기도의 자세*

미사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정신과 마음과 음성으로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기도합니다. 설 때 - 오래된 기도의 자세와 흡송, 앉을 때 - 경청의 자세, 그리고 무릎

끓을 때 - 겸손된 경배의 자세 이 모든 자세는 우리의 전례 거행에서 적절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입당, 복음 선포, 신앙고백 그리고 신자들의 기도 때는 서고, 말씀의 전례와 강론 때 앉아 있습니다.

성체 기도와 관련하여 저는 우리가 로마 미사 전례의 일반 지침과 미국에 널리 퍼져있는 관행에 따라 성체 성사 전례와 성찬식 동안 대교구에서 공통된 자세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를 노래 또는 낭송한 후 성체 기도의 아멘을 할 때까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sup>27</sup> 성체 기도 후에 우리는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평화의 표징을 교환합니다. 평화의 표시는 단순한 선의의 표시 그 이상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받고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우리를 주님과 그리고 또 우리 서로가 통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또한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천주의 어린양"<sup>28</sup> 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된 경배의 입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없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사 가운데서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일어나 영성체 행렬에 참여할 때가 될 때까지 영성체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영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은 그분의 몸과 피의 성사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성한 순간입니다. 친밀하지만 단순히 개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영성체를 받을 때, 우리는 함께 모인 공동체 전체와 함께하는 행렬의 일부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따라서 성찬 행렬에서도 자세의 통일이 중요합니다. 시애틀 대교구에서 우리는 로마 미사 일반지침에 표현된 미국 규범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향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나 피를 받기 전에 절을 하고, 성작을 든 주례 사제 앞에 섭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거나, 성체를 받는 개별적인 다른 행동을 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사람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 주의를 끌 수 있는 개인적인 경건한 표현의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체 성사 안에서 주님의 참된 현존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경건하게 여기는 지금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가장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을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같은 성체의 주님을 받는 다른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는 동안 찬양을 하고 성체를 모시는 것은 하나 됨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성체 후에 자리로 돌아오면 "<sup>29</sup> 성체 후 성스러운 침묵으로 앉거나 무릎을

끓는 것' 이 적절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받은 비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토록 소중한 선물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성체 후 성합의 정화는 사제나 부제가 합니다. 주님의 성체 성사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은 이 예식을 조심스럽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만 지나치게 연장해서는 안됩니다. 로마 미사의 일반 지침을 사용하면 제구들을 곁 테이블에 놓고 덮어놓고, 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미사 후에 씻을 수 있는 선택이 주어집니다.

저는 모든 사제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전례 문서와 본문을 검토하여 우리가 성체성사의 주례자로서 겸손하게 고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묘하지만 실제적인 변화가 기도의 언어나 추가적인 동작 또는 관습의 언어로 전례 거행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제조차도 자신의 권위에 따라 전례에서 어떤 것도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sup>30</sup>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로마 전례 법규에 더 충실하게 헌신합시다.

이 사목 서안과 함께 저는 시애틀 대교구에서 성체 성사를 거행하기 위한 개정된 지침을 발표합니다. 저는 모든 사목자들에게 주의 깊게 지침을 검토하고 새 전례의 해인 2020년 대림절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변경하도록 요청합니다.

## 성체와 관용

교회가 성체 성사를 거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은 빵과 포도주 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모은 것과 봉헌할 때, 우리는 상징적으로 우리 자신을 제단 위에 올리고, 우리는 (빵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회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고 싶다면 사도가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고리도 전서 12:27) 그리스도의 몸과 그 지체가 당신이라면 주님의 식탁에 올려진 것은 당신을 의미하는 신비입니다. 당신이 받는 것은 당신을 의미하는 신비입니다."<sup>31</sup>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성찬을 거행하며 사랑의 삶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넓이는 것입니다.

성체 성사는 우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신하게 합니다.<sup>32</sup> 최근 교황들은 성체와 자선 사이의 연관성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성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는 “사랑의 요구에 맞지 않는 사우 화 되고 개인주의 적인 영성의 유혹의 거부”를 위해 우리의 영성을 바탕으로 유지하라고 상기시키셨습니다. <sup>33</sup> 그분은 성체성사의 해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 이것이 우리가 성체를 영하는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sup>34</sup> 교황 베네딕토 16 세는 찬미와 봉사, 성체와 자선 사이의 본질적인 연결 고리를 반복했습니다: “ ‘찬미’ 그 자체 인 성체 성사에는 사랑받는 것과 다른 사람을 차례로 사랑하는 것의 현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넘어가지 않는 성찬 성사는 본질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sup>35</sup>

앞으로 몇 달 동안 성체 성사를 강화하고 성체 영성을 심화하기 위해 노력할 때,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넘쳐나는 참된 성체 성사에도 헌신합니다.

## 성체 성사의 해

이 편지를 통해 저는 6 월 14 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하여 2021 년 6 월 6 일 주일에 엄숙함으로 마무리하는 성체 성사의 해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성체 성사에 대해 모든 사람을 위한 교리 교육과 가르침의 시간입니다. “열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영혼의 사목자는 신자들의 전례 적 가르침과 내 외부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해야 합니다.”<sup>36</sup> 사제와 부제는 올해 성체 성사에 대해 설교하기 위해 독서 성구집에 제시된 모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본당이 모든 전례 사제들에게 추가의 훈련을 제공하고 모든 신자들을 위한 추가 교리 교육을 제공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우리가 거행하는 신비에 들어가 더 온전히 감사하는 것이며, 신자들이 미사 마지막 파견이 의미하는 바를 이 성체 성사 생활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세상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교구는 본당 지도자들이 본당 단체와 가정에서의 학습을 위한 좋은 자료와 연설가를 구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교구는 기도의 기회뿐만 아니라 성체 성사 교리 교육과 그것이 삶의 회심과 거룩함을 위해 제공하는 깊은 은총의 근원을 제공하기 위해 피정과 워크샵을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강화된 기도와 공부의 시간이 이 놀라운 선물, 즉 성체성사인 구속 사업을 축하하기 위해 주일날 모이는 것을 강하게 하길 바랍니다.

올해 성체 성사의 주요 초점은 우리의 이해를 높이고 미사에서 성체를 거행하는 방법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성체 현존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축복받은 성사 전에 기도하는 순간으로 이끕니다. 저는 모든 사목자들이 신자들이 축복받은 성찬을 흠송하는 시간에 다가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신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도록 장려합니다. 불일을 보거나, 방과 후 자녀를 기다리는 동안 축복받은 성찬 전에 잠시 기도하는 동안 교회에 들르는 축복받은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각자가 축복받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소망과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말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 즉 우리의 희망, 두려움, 기쁨, 관심, 질문을 우리의 말로 듣고 알고 싶어 합니다. 이 편지의 시작 부분에 인용된 바와 같이 교회는 성체 성사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sup>37</sup>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인 우리 각자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법을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더 온전히 우리를 통해 살도록 허락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것은 성체 성사의 생활의 모든 것의 큰 부분입니다!

저는 전례 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이 헌신적인 기간이 가장 적절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체를 거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모이는 우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체 성사의 해를 축하하는 것은 저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섭리로 우리가 새로워진 기도와 성체 연구를 통해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하느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 **마리아, 성체 성사의 어머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특권적인 순간부터 복되신 어머니는 큰 사랑과 의지의 복종으로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느님의 아들로써 아이가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 끊임없는 왕국의 보좌를 받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루카 복음 1:26-38 참조) 예언자 시몬은 또한 예수를 통해 마음이 드러나고 마리아 자신의 마음이 칼로 찢린 듯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루카 복음 2:33-35 참조) 마리아는 태어난 순간부터 사랑스럽게 순종적으로 아드님이신 예수를 아버지께

바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까지 십자가 밑에 서있는 그녀의 마음은 아들의 심장과 함께 찢렸습니다. 그의 희생, 그리고 그녀 자신이 가져온 이 희생자의 제물에 사랑스럽게 동의했습니다.”<sup>38</sup>

마리아는 은혜의 어머니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우리를 위해 구원과, 신성한 생명과 끝없는 영광과 같은 가장 큰 은혜를 우리를 위해 얻은 그리스도의 시종이시기 때문입니다. <sup>39</sup> 우리의 복되신 어머니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서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다친 몸을 팔에 안았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성령강림 대축일에 계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리아는 교회와 함께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모든 성체 성사에 참석하십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법을 보여주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사랑으로 드리는 제물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께, 다가오는 성체 성사의 해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성체를 맡깁시다. 그리스도의 삶, 모든 성체 성사에서 우리와 함께 나누는 삶과 사랑을 더 온전하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분의 전구를 구합시다. 그분의 전구가 우리가 매 미사에서 성취된 구속 사업을 통해 우리 각자의 거처를 새롭게 하는 그녀의 아들과 더 온전히 협력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길 바랍니다.

성체 성사가 우리를 어떻게 먹이고 이 음식이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선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시에나의 성 카타리나 성인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체는 불처럼 나누어진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타오르는 등불을 가지고 있고 온 세상이 빛을 위해 당신에게 왔다면, 당신의 등불의 빛은 나눔에 의해 감소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을 공유한 각 자는 전체의 빛을 가질 것입니다. 사실, 각자의 빛은 불을 받기 위해 가져온 재료와 종류에 따라 다소 강렬할 것입니다. ...*

*당신의 존재는 사랑으로 당신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의 피의 권능으로 받은 거룩한 세례 안에서 당신은 이 빛을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이 빛을 견디려면 믿음의 심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례로 받은 이 은혜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사랑에 동참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창조했습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사랑은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sup>40</sup>

시에나의 성 카타리나 축제  
2020 년 4 월 29 일  
시애틀 대교구 주교 임명 1 주년



Most Reverend Paul D.  
Etienne, DD, STL  
시애틀 대교구

## 감사의 말

관대하고 통찰력 있는 자문을 제공해 주신 OSB Abbot Jeremy Driscoll 과 이 문서 작성에 큰 도움을 준 Corinna Laughlin 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sup>1</sup> 성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님의.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sup>1</sup>

<sup>2</sup>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2.

<sup>3</sup> 가톨릭 교회의 교리 571

<sup>4</sup> 부활 선포에서 “용약하여라” 로마 미사예식

<sup>5</sup>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의 환희 (Evangelii Gaudium), 120.

<sup>6</sup>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2.

<sup>7</sup>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48.

<sup>8</sup>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11.

<sup>9</sup> Pseudo-Chrysostom 의 고대 부활절 강론중— 부활절 둘째 주 월요일 독서

<sup>10</sup> 미사 전례 성서의 소개, 13.

<sup>11</sup> 복음서의 소개, 4.

- 12 로마 미사 예식서의 일반 지침, 55.
- 13 성 요한 바오로 2 세, 성체성사로 산다, 5
- 14 프란치스코 교황 복음화의 환희, 262
- 15 같은자리에서.
- 16 베네딕도 16 세 교황 하느님 아버지의 애덕, 18.
- 17 성 요한 바오로 2 세 성체성사로 산다, 8.
- 18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 받으소서, 236.
- 19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10
- 20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14
- 21 감사기도 III, 로마 미사 예식.
- 22 성목요일 봉헌 성가 “참사랑이 있는 곳에 (Ubi caritas)” 에서 로마 미사 예식.
- 23 교황 베네딕토 16 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4
- 24 로마 미사의 일반 지침, 46.
- 25 로마 미사의 일반 지침, 42.
- 26 로마 미사의 일반 지침, 42.
- 27 로마 미사의 일반 지침, 43.
- 28 같은자리에서.
- 29 같은자리에서.
- 30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22.
- 31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 272.
- 32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 1397.
- 33 새 천년기, 52
- 34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28
- 35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4
- 36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19
- 37 성 요한 바오로 2 세 성체 성사로 산다, 1
- 38 교회 헌장, 58.
- 39 교회헌장, 61.
- 40 시에나의 성 카타리나, 대화, 110.